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가자마다 대학교	성명	한글	아지마 딸 알리피야	생년월일	1997 년 3 월 23 일
	영문	Universitas Gadjah Mada		영문	Azimatul Alifiyah	학년	3학년

나 비 같은 나의 꿈
 어렸을 때 부터 어른 들 은 우리 에 게 네
 꿈 이 뭐 냐 고 말 이 물 어 봤 다. 그 때 는
 우리 가 아무 도 모 르 면 서 그 냥 당 당 하 게
 '나 의 사 가 될 거 야', '나 경 찰 이 되 고 싶
 다!' 라 고 대 답 했 다. 영 화 에 서 많 이 봤 던
 경 찰 이 나 선 생 님 에 게 서 들 었 던 의 사 이
 야 기 때 문 에 그 때 경 찰 이 나 의 사 가 되
 면 멋 있 다 고 생 각 을 했 다. 그 런 데 시 간
 이 지 날 수 록 꿈 이 라 는 것 은 그 려 게
 쉽 게 생 각 하 면 안 된 다 고 생 각 이 들 었 다.
 왜 냐 하 면 꿈 은 우리 인 생 을 결 정 하 기
 때 문 이 다. 그 러 므 로 꿈 이 라 는 뜻 이 무 엇
 인 지 먼 저 스 스 로 생 각 해 서 자 기 꿈 이
 무 엇 인 지 꿈 이 생 각 해 야 한 다. 그 러 면
 꿈 이 라 는 것 이 무 엇 일 까? 나 는 꿈 이 라
 는 것 이 우리 가 하 고 싶 은 것 과 우리
 가 무 엇 이 되 고 싶 은 것 만 아 니 라 그
 원 함 을 이 루 기 위 해 서 열 심 히 노 력 해 서
 우리 의 초 심 을 지 키 는 것 이 라 고 생 각 한
 다. 그 리 고 어 려운 때 우리 가 말 했 던
 경 찰 이 나 의 사 가 되 고 싶 은 것 도 꿈 이
 지 만 그 때 아 직 어 리 니 까 생 각 이 지 금
 과 다 를 뿐 이 다.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가자마다 대학교	성명	한글	아지마뚝 알리피야	생년월일	1997 년 3 월 23 일
	영문	Universitas Gadjah Mada		영문	Arumahi Alifiyah	학년	3학년

100

어렸을 때 부모님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외국으로 가고 싶다가나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웃으면서 부모님이 “그럼 영어 하고 다른 외국어도 잘 해야겠네” 라고 말했 다.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른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고 ‘그 룰 구 4’ 라고 생각했 다.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은 아직 변하지 않았 다. 그 꿈 때문에 한국어 전공을 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가자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록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지금은 누나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 꿈이 많다고 대답한다. 나는 춤을 추는 것이 아주 좋아한다. 학교에서 춤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도 그 동아리에서 투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투터나 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데 예술 선생님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서 고민이 된다. 그리고 작년에 5개월 동안 한국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유학해서 한국에서 살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가서 SBS, KBS, MBC 같은 방송

200

300

400

500

page No. 2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가자마다 대학교	성명	한글	아지마뚜 알리피야	생년월일	1997 년 3 월 23 일
	영문	Universitas Gadjah Mada		영문	Animatu Alifiyah	학년	3 학년

국 에 서 일 하 고 싶 다. 요 즘 예 능 프 로 그
 램 들 중 에 인 도 네 시 아 어 자 막 을 제 공 하
 는 예 능 이 많 아 진 다. 예 를 들 면 안 념 하
 세 요 라 는 프 로 그 램 이 다. 그 프 로 그 램
 처 럼 다 른 프 로 그 램 에 서 도 인 도 네 시 아 어
 자 막 작 가 가 되 고 싶 다. 그 것 뿐 만 아
 니 라 한 국 에 있 는 엔 터 테 인 먼 트 회 사 에
 서 도 일 을 하 고 싶 고 한 국 에 서 인 도 네
 시 아 같 은 분 위 기 를 느 낄 수 있 는 인
 도 네 시 아 카 페 도 열 고 싶 다.
 나 는 꿈 이 그 렇 게 많 이 생 겨 서 고 민
 이 된 다. 그 런 데 계 속 열 심 히 노 력 하 고
 포기 하 지 않 는 다 면 그 들 중 하 나 라 도
 이 쿨 수 있 는 것 이 믿 는 다. 멀 고 어 렵
 지 만 아 름 다 운 이 나 비 같 은 꿈 이 생
 겨 서 나 의 인 생 은 더 아 름 다 워 진 다.